

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금현섭**·백승주***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후생(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기대의 중요성과 그 형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기대는 소득수준 이외의 다양한 소득변화 양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요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기대의 형성요인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래기대에 대한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소득이동성, 소득안정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소득상승의 경험은 미래기대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변화의 경험은 준거집단에 대한 소득격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또한 동일한 소득상승을 경험하더라도 안정적 소득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소득안정성을 갖더라도 소득하락보다는 상승을 경험하는 경우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에 있어서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은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사회·고용정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주관적 후생 증진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제시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소득격차, 소득이동성, 소득안정성, 미래기대

I. 서론

주관적 후생¹⁾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학계는 물론 정책현실에서 찾아지고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 대한 개념적·방법론적 비판(Stiglitz, 2010)²⁾에 대한 대안으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제도 및 개별 정책을 국민의 시각 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114).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hyunsk@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qbic30418@snu.ac.kr).

1) 주관적 후생(subjective well-being)은 대체로 각 개인이 갖는 자신의 내·외적 지위(status)에 대한 판단이나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material), 심리적(psychological) 환경과의 관계 등에 대한 평가개념으로 정의된다(Siegrist, 2003). 연구자에 따라서 행복(Fery & Stutzer, 2002a)이나 효용(Bernard, Van Praag & Ferrer-i-Carbonell, 2007)과 동일시하거나, 개인의 삶의 만족도(gross satisfaction)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Easterlin, 2001; 김정호 외, 2009).

는 체감정도를 중심으로 접근·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관적 후생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Frey & Stutzer, 2000; Stutzer & Frey, 2006)³⁾ 그 중 주관적 후생의 영향요인으로서 소득(income)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그 관련성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Easterlin(1974, 1995, 2010)의 역설(paradox) 이후 촉발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는 한 개인 혹은 가구가 취하는 절대적인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income disparity),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 소득안정성(income stability)과 같은 다양한 소득변화의 양태가 갖는 주관적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력 또는 그 가능성이 이론적·실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Osberg & Sharpe, 2002; Morissette & Ostrovsky, 2005; 금현섭·백승주, 2014)

하지만 소득격차, 소득이동성, 소득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소득양태가 어떤 기제를 통하여 주관적 후생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지만 그 중 주목할 부분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future expectation)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즉,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이동성, 안정성)에 대한 경험(experience)이 각 경제주체들의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주관적 평가정도가 경제 주체들의 주관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Graham & Pettinato, 1999). 사실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심리는 저축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나(Caroll, 1994)⁴⁾ 투표행위와 같은 정치적 의사결정(Mateju, 1999) 뿐만 아니라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Birdsall & Graham, 1999). 하지만 이와 같은 미래기대의 결과적 측면(consequence)에 비해 미래기대 형성의 원인 특히, 소득차원에서의 다양한 양태에 주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는 소득과 미래기대 간의 관계가 밀접할 것이라는, 하지만 실제 규명되지 않은 일반적 통념(conventional wisdom)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득과 주관적 후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의 형성과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로는 먼저, 주관적 후생은 분명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갖지만 이때 소득은 현재소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미래소득 역시 고려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미래소득은 아직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신의 주관적 기대(expectation)에 의존하

2) 삶의 질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강조하며 소득 이외에 건강,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및 소속감 등을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물론 이러한 다양한 범위에서의 주관적 후생에 대한 논의의 확장은 국민들의 주관적 후생(행복)이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표임과 동시에 주관적 후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다.(Bok, 2010)
4)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사실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체감정도 및 이에 근거한 경제전망(economic prospectus)을 따져볼 때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거시경제가 아닌 개인 스스로의 소득측면에서의 향후 전망 또는 기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는데, 물론 시계(time horizon)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일수록 주관적 후생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그 역의 경우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후생을 이해하는데 미래(또는 미래소득)에 대한 주관적 기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⁵⁾

둘째, 이러한 자신의 미래(또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 형성은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소득을 기초로 함은 분명하지만 현재 고소득자라고 해서 그 상황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저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향후 소득창출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인데,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측면의 고려를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정태적 측면에서 타인의 소득수준에 대비한 자신의 소득이며, 다른 하나는 동태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소득추이(income trajectory) 경험이 그것이다.

먼저 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호의존적 선호(interdependent preference) 개념은 개인의 효용함수가 자신의 선호 뿐 아니라 타인의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Duesenberry, 1949; Leibenstein, 1950), 이를 소득차원에 적용해보면 개인의 소득 역시 그 절대적 수준과 함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의미가 자신의 후생에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상대소득(또는 소득격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박탈감(deprivation)으로 간주하는 경우(Yitzhaki, 1979, 1980), 이러한 격차의 증가는 개인의 미래기대에 부정적일 것인 반면, 소득격차를 일종의 사회적 보상체계에 대한 신호이자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motivation)로 보는 경우, 이러한 격차의 증가는 미래기대에 최소한 부정적이지만은 않거나 도리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즉, 소득격차(또는 상대소득)는 자신의 소득창출능력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주관적 판단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구체적 영향관계는 해당사회의 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한편, 동태적인 측면 즉, 개인의 과거 소득변화추이(income trajectory)와 그 양태의 차이에 의해서도 미래기대 수준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득창출 정도는 매번 새롭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당부분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경향을 띠고 있는데 과거 소득상승을 경험한 경우 보다 긍정적인 미래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하락을 경험한 경우 보다 부정적인 미래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Ravallion & Lokshin(2000)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는 낮지만 소득추이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경우 앞으로의 소득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도리어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추이의 변화양

5) 주관적 후생과 미래기대 간의 관계는 일면 상호의존적 또는 순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논의하듯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후생의 요인으로 현재소득은 물론 미래소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가 현재 후생수준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소득변화를 다시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과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최근의 연구경향(Gottschalk & Moffitt, 2009)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소득상승과 하락을 소득이동성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소득변화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향후에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등락이 빈번하고 체계성을 띠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우 그 경향이 지속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기피적·보수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주관적 후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소득차원에서의 미래기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횡단면적인 소득격차와 시계열적인 소득변화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 기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대해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비교에 있어서도 시·공간적 준거기준을 상정하고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⁶⁾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에서 소득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혹은 노력에 대한 보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변화로서의 소득이동성과 이러한 변화의 안정성의 수준과 양태가 미래기대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보다 긍정적인 미래기대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른 물질적·비물질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태도 즉, 정책의 수용성과 효율적·효과적 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전영상 외, 2011)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수용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에 따른 거래비용은 감소할 수 있고, 정책의도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논의로서 소득격차와 주관적 후생 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미래(소득) 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기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태적 요인으로 소득격차를, 동태적 요인으로서 소득변화를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들 논의를 토대로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의 미래기대에 대한 관련성과 영향력을 실증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것이며,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를 적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소득격차와 미래기대

6) 예를 들어, 자신의 현재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나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동료들의 소득수준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소득과 비교하거나 그 변화과정을 또 다시 동료들의 소득변화과정과 비교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태이다.

소득격차는 기본적으로 개인(또는 집단) 간 소득수준의 비교를 통해 측정된다. 물론 이때 소득수준의 비교는 한 사회 내 모든 개인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정화된 집단에 대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의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⁷⁾ Clark et al.(2008)의 주장처럼 개인이 주관적 후생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절대소득(absolute income) 보다는 주변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 주관적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향성과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Runciman(1966)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격차를 자신의 준거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지하는 시각이다. 이 경우 소득격차의 증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주관적 후생의 감소를 수반한다고 본다. 특히 낮은 소득에 위치한 사람들일수록 가장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격차(혹은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 또는 회피성향(inequality-aversion)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관계(asymmetry)가 나타날 수 있다.⁹⁾

또 다른 시각은 사람들에 따라서 소득격차를 노력에 대한 보상(rewards) 또는 미래 상황에 대한 신호(signal)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경우다(Senik, 2004). 즉, 소득격차는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심리(anticipatory feelings)나 동기부여(motivation)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후생(행복)과의 관계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Caplin & Leahy, 2001). 이러한 기대심리의 작동 가능성은 대체로 Hirschman & Rothschild(1973)의 이론적 예측인 터널효과(tunnel effec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터널 안에 두 개의 차선에 늘어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는 옆 차선에 있는 차량들이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자신의 차선도 곧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준거집단)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도 곧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기대를 통해 주관적 후생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이다.¹⁰⁾

7) 예를 들어, McBride(2001)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과 연령이 ±5세인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Ferrer-i-Carbonell(2005)은 독일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유사한 교육수준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Clark & Oswald(1996)은 영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력, 산업분야, 거주 지역, 연령, 직업 등의 변수를 포함한 소득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소득을 준거소득으로 설정하고 있다.

8) Runciman (1966)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론을 이후 Yitzhaki(1979)가 수리적 설명을 부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Gini)가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소득 혹은 불평등 행복(효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은 Runciman-Yitzhaki 매커니즘으로 불리기도 한다.(Verme, 2011)

9) 소득격차의 주관적 후생(행복)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준거집단 소득보다 낮은 소득의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준거집단 소득보다 높은 소득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상대적 박탈감 개념 및 비대칭적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0) Verme (2011)은 Hirschman (1973)의 견해에 대해 소득이동성은 일부 집단(특히 소득집단)에 따라 그 민감

이처럼 소득격차와 주관적 후생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최근 들어 지속적인 소득격차(불평등)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Hirschman & Rothschild(1973)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는 해당 사회의 객관적 소득격차를 주관적 인지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의 미래상황이 보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제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관적 후생을 증가시키거나(Graham & Pettinato, 1999) 또는 사회 내 소득격차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득격차와 미래기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미래기대(future expectation)가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내재된 심리적 정향에 대한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예측을 의미하는 기대심리(psychology of expectation)(장병기 외, 2001)나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대감을 의미하는 삶의 기대(life expectancy)(Diener et al, 1985, 김정호, 2007) 등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서로 다른 용어로 각 학문분야의 특정화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 그 의미와 맥락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기대는 소득변화의 문제에 특정화하여 “자신의 미래 경제상태(소득수준)가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 또는 기대심리”로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미래기대와 주관적 후생의 관계의 동향성을 가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Verme(2011)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소득격차가 지속되는 즉, 옆 차선만 움직이고 자신의 차선은 정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후생의 감소가 Hirschman & Rothschild(1973)의 터널효과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고 실망(disappointment)으로 바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득격차와 미래기대의 관계에서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볼 일이며 이를 사전적으로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 소득변화와 미래기대

그렇다면 미래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는 미래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지위에 비해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여길수록 긍정적

정도(sensitivity)가 다르고, 준거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소득이동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으로 볼 경향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은 해당 사회가 얼마나 계층이동을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Alesina et al. (2004)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소득격차(소득불평등)가 주관적 후생(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임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로 미국과 유럽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¹¹⁾ 즉,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사회를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미국)와 상대적으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유럽)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층이동의 기회에 대한 인식(perceived social mobility)이 긍정적인 경우 소득격차와 주관적 후생의 관계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거나 사회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소득격차가 주관적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trade-off)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하지만 한 사회의 계층이동에 대한 개방정도는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이 판단하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그러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신의 소득변화의 경험은 그러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소득수준의 증가를 경험했다면 향후에도 그러한 소득증가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거나 일정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운 반면, 정체 또는 감소를 경험했다면 소득상승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 오래 전의 것이라면 그 가능성은 최근의 그것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경험하는 시계열 차원에서의 소득변화는 횡단면적으로 파악하는 소득격차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점은 D'Ambrosio & Frick (2007)의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소득비교를 시공간적 구분에 따라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i) 자신의 현재수준소득과 (ii) 자신의 소득변화정도, 그리고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iii) 자신의 소득수준과 다른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비교와 (iv) 자신의 소득변화정도나 다른 사람의 소득변화정도와의 비교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소득격차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다른 사람(준거집단)과의 비교정도(유형 iii)에 해당한다면, 소득변화는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자신의 소득변화(유형 ii)이거나, 이

11) Alesina et al (2004)는 미국과 12개의 유럽국가내의 존재하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개인의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모두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가 유럽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미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고, 그 방향성만 부정적(negative)를 유지). 특히, 유럽에서는 진보적 이념성향이나 저소득층이 소득불평등에 보다 민감히(부정적)반응 하지만 미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2) Benabou & Ok (1998, 2001)은 소득불평등과 복지지출의 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지출의 감소를 선호하는 현상을 POUM(prospective of upward mobility) 가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POUM 역시 경제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이해할 수 있다.

러한 소득변화 정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경우(유형 iv)를 포함한다.

〈표 1〉 소득비교의 양태

	정적(static)	동적(dynamic)
절대적	i 소득수준정도	ii 소득변화정도
상대적	iii 준거집단과의 수준비교	iv 준거집단과의 변화정도 비교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소득변화를 다시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득분포(income distribution)상의 지위변화를¹³⁾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위변화의 경험은 자신의 소득지위에 대한 미래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강신욱, 2011). 단적으로 소득의 상승(또는 하락)을 경험한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¹⁴⁾ 예를 들어, Alesina & Ferrara(2005)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본인의 사회적 이동경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¹⁵⁾ Clark(2003)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상향이동성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소득격차(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보다 긍정적인 후생수준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⁶⁾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부분은 소득변화의 또 다른 차원으로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소득이동성을 개인의 시간변동에 따른 소득 증가 또는 감소정도로 이해한다면, 소득불안정성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성의 양태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Gottschalk & Moffitt(2009)은 소득변화를 영구적(permanent)부분과 일시

13)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소득이동성을 어떤 측면에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Fields(2000)은 소득이동성을 소득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입, 지출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이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면서, 소득이동성의 측정과 관련된 5가지 차원(① 세대간 이동을 의미하는 시간의존적 측정, ② 경제적 지위상 변화를 의미하는 지위변동, ③ 사회내의 총소득에 대한 자신의 소득몫(share)의 변화를 의미하는 소득몫의 이동, ④ 개인의 소득변화(fluctuation)를 의미하는 대칭적 소득변화, ⑤ 소득이득과 손실을 분리하는 방향적 소득이동)을 제시하고 있다.

14) 이와 관련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Piketty (1996)의 연구인데, 개인은 자신의 과거 사회적 이동(주로 소득계층이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재분배에 대한 선호(preference)를 결정한다는 학습모형(learning model)을 주장하고 있다.

15) Alesina & Ferrara (2005)은 이동성 경험을 교육과 직업에 대한 세대간 이동정도(intergenerational mobility)로 측정하고 있는데, 저자들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세대간 이동성을 소득이동성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직업과 교육이동성을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16) Ravallion and Lokshin(2000), Corneo and Gruner(2002), Corneo(2000)의 연구에서는 과거 소득이동 경험이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이론적 가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적(transitory) 부분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변화를 소득이동성 개념으로, 후자의 변화를 소득불안정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이때, 어떤 두 개인이 상이한 두 시점에서 동일한 소득분위상의 증가(혹은 감소)를 경험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시계열적인 소득변화의 정도(폭)와 양태는 다를 수 있는데, 한 개인은 안정적 또는 선형의 양태로 이동한 반면, 다른 개인은 빈번한 소득증감 과정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요지는 이러한 소득불안정성에서의 차이점이 미래기대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소득불안정성이 개인(가구)의 행태 또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높은 소득불안정성이 예방적(precautionary) 행태로서 저축증가나(Caballero, 1991; Browning & Lusardi, 1996; Irvine & Wang, 1994, 2001; Huggett, 2004), 가구원의 노동공급(Pistaferri, 2003), 혹은 개인(가구)의 임신행태(fertility behaviour)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Wu, 1996; Fraser, 2001). 특히 신용시장의 미성숙으로 필요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거나(Browning & Lusardi, 1996; Dynarski & Gruber, 1997) 또는 사회보험이나 정부이전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완충적 정책수단이 부재한 경우 예상치 못한 소득변화(즉, 소득불안정성)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와 개인이 기대한 소비행태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본다(Morissette & Ostrovsky, 2005). 즉, 이러한 소득불안정성이 내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해당 개인의 위험회피적(risk-aversion) 태도를 유발하며 만약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또는 개인적 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바로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소득격차와 소득변화가 자신의 미래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이하 복지패널)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설문내용 기준)부터 연단위로 수집된 패널자료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가구에 대한 정보

17) 통계적으로 비유한다면 일종의 critical mass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변동성을 갖는 noise를 가정할 때 전자를 이동성으로, 후자를 불안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득격차와 소득변동)와 가구주에 대한 정보(미래기대)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¹⁸⁾ 즉,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가구주(householder)로 한정하고, 가구주의 인식과 행태가 각 가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2〉 분석범위와 대상

분석연도	분석대상 (가구 및 가구주)	각 분석연도에 포함된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의 측정범위
2008	4,323	2006~2008년도 변화
2011	4,452	2009~2011년도 변화
계	8,775	

한편, 실제 분석에서는 복지패널 자료 중 2008년도와 2011년도 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종속변수)인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3년에 한 번씩 조사되어 2005, 2008, 2011년도 조사 자료에만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 개념은 각 가구의 지난 3년간의 소득변화로 측정하였기 때문에(〈표 2〉 참조) 조사 첫해인 2005년도의 경우 2005년도 이전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어 분석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치(outlie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변화가 극심한 상하위 1%의 자료는 절삭하였으며, 분석기간 중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득변화 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도 4,323가구, 2011년도 4,452가구의 가구와 가구주 정보이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모형

활용된 주요변수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각 가구주가 예측하는 자신의 경제적 생활 상태에 대한 예상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복지패널에 포함된 “5년 후 귀하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합니까?”라는 5점 척도(매우부유↔매우가난) 질문을 사용하였다.¹⁹⁾

18) 가구원 모두를 분석단위로 설정할 경우 복지패널 조사에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복지패널에 포함된 소득정보 중 재산소득과 이자소득과 같은 일부 소득원천(source)이 가구수준에서만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설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Alesina & Ferrara (2005)은 주관적 기대감(subjective expectation)에 대한 설문으로 “본인과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한편, 소득격차의 정도는 앞서 논의한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의 개념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상대소득의 개념과 측정은 학자마다 매우 상이한데, 특히 상대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비교대상,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방법(측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⁰⁾ 본 연구에서는 Senik(2004)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는 준거집단의 소득은 각 개인의 (노동)생산성에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특정한 단일 또는 복수의 기준에 따라 준거집단을 설정하기 보다는 분석대상 전체(혹은 자료에 포함된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교육수준, 경력, 직업, 지역, 고용형태(전일제) 등을 이용한 소득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소득액(predicted value)을 이론적 준거집단의 기준소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할 수 있는 준거집단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해당 사회의 다차원적인 정보(노동 생산성 포함)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준거소득수준을 추정해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²¹⁾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득이 가구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구형태(모부자, 소년소녀, 기초생활수급 여부), 가구크기 등의 요인을 추정모형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준거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식 1) y_{it} = \beta_0 + \beta_k x_{itk} + e_i + u_{it}$$

y = 균등화가구소득
 x = 연령, 연령², 교육, 교육², 경력, 경력², 결혼, 건강, 가구크기, 가구형태, 경제활동상태, 지역
 $t = 1, 2, 3$

준거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다소 엄격한 가정²²⁾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각 가구의 차별적인 특징을 모형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문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김정호(2007)의 경우 “앞으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앞으로 내 삶의 여건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내 삶에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설문에 비해 복지패널의 설문은 오히려 자신의 미래경제상황에 기대를 보다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정도의 범위를 부유와 가난이라는 구체적인 거리감 정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다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예를 들어 Eastelin (1995)는 준거집단을 동일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Persky & Tam (1990)은 동일한 지역 내 주민으로, McBride(2001)은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구성원(±5세)으로, Van de Stadt et al.(1985)은 교육수준, 연령, 취업상태가 유사한 사람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현송(2001)은 교육수준과 연령이 유사한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21) 성별, 연령, 취업상태의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준거집단을 구성하여 소득격차를 구해보았지만 결론에서의 차별성이 없어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2) $cov(e_i, u_{it}) = cov(e_i, x_{it}) = cov(u_i, x_{it}) = 0$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Gottschalk & Moffitts, 1994; Morissette & Ostrovsky, 2005). 다만, 이후 소득격차를 추정할 때 확률효과모형 추정을 통한 가구소득의 절대액을 사용하는 경우 고소득자 집단에서의 소득격차와 저소득자 집단에서의 소득격차가 그 수준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³⁾ 즉,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에게 100만원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거집단 소득대비 본인소득의 비율을 소득격차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한편, 소득변화는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각 가구별로 지난 3년 동안의 소득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의 경우 그 측정에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Gottschalk & Moffitts(1994)이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변화를 영구적(permanent)인 부분과 일시적(transitory)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소득불안정성을 후자에 한정하여 각 가구(개인) 수준에서 추정된 생애소득과 실제소득 간 차이의 분산값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앞서 지적한 소득격차의 측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처럼 각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소득차이를 동일한 소득불안정성 정도로 측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생애소득의 평균이 300만원인 가구의 소득이 (350, 300, 250)으로 변동했다면, 이 가구의 생애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의 표준편차는 50만원이 된다. 반면, 생애소득의 평균이 3,000만원인 가구의 소득이 (3050, 3000, 2950)으로 변동하게 되면, 이 가구의 생애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의 표준편차 역시 5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300만원인 가구에게 50만원의 소득변화는 상당히 큰 변동을 의미하지만, 평균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에서 50만원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의 소득수준을 소득불안정성 정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소득에 대비 실제소득 비율의 3년간 표준편차를 소득불안정성 정도로 사용하였다.²⁴⁾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소득이동성, 소득불안정성) 이외에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후생함수(subjective well-being function)를 구성할 때 자주 고려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Clark & Oswald, 1996; Clark, 2003; Ferrer-i Carbonell, 2005; Posel & Casale, 2011). 이는 앞서

23) 예를 들어 준거집단의 소득이 1000만원이고, 실제소득이 900만원이 경우와 준거집단의 소득이 300만원이고 실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절대적인 소득차이는 모두 100만원이기 때문에 양자의 상대소득의 크기는 동일해진다. 반면 전자의 경우 준거집단 대비 소득의 비율이 -10%이지만, 후자의 경우 -33%가 되어, 후자의 상대소득의 격차가 보다 커지게 된다.

24) 예를 들어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평균소득인 300만원인 가구의 소득변화가 (350, 300, 250)일 경우 첫 번째 소득의 평균소득대비 소득비율은 $(350-300)/300 \times 100 = 16.66\%$, 두 번째 소득은 0%, 세 번째 소득은 -16.66% 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가구의 소득안정성은 (16.66, 0, -16.66)의 표준편차인 16.66이 된다. 마찬가지로 평균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의 소득변화가 (3050, 3000, 2950)일 경우 평균소득대비 소득비율은 (1.66, 0, -1.66)이 되고, 이 가구의 소득안정성은 1.66이 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심이 소득격차와 미래기대의 관계를 소득격차와 주관적 후생 간의 관계 속에 내재된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인데, 주관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미래기대 형성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 각기 강조되어 온 연령(Blachflower & Oswald, 2008), 실업 또는 경제활동상태(Lucas et al, 2004), 결혼(혼인상태)(Clark & Diener, 2008) 등의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3>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측정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변수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

측정요소	측정내용	측정방법	2011년도 평균 (표준편차)
미래기대	5년 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1) 매우 가난 <-> (5) 매우 부유	2.53 (0.83)
가구소득	가구 경상소득 (연소득,만원)	$= LN\left(\frac{LN(\text{가구별 균등화 경상소득})}{\sqrt{\text{가구원수}}}\right)$ = LN($\frac{\text{근로} + \text{사업} + \text{재산} + \text{이전소득}}{\sqrt{\text{가구원수}}}$)	7.23 (0.70)
소득격차	상대소득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된 준거집단의 평균소득대비 실제소득 비율의 3년간 평균	-11.32 (232.68)
소득변화	소득이동성	3년전 소득대비 소득 증가율	10.17 (41.74)
	소득안정성	3년 평균소득대비 소득비율의 표준편차 (값이 높은 수록 소득안정성이 떨어짐)	19.88 (16.20)
개인 특성	연령	현재 만 나이	60 (14.65)
	교육	(1) 미취학 <-> (8) 박사	3.45 (1.64)
	결혼여부	(0) 미혼 (1) 결혼	0.67 (0.47)
	건강상태	(0) 장애없음 (1) 장애있음	0.075 (0.264)
	경력	현 직장 재직기간(년)	9.92 (14.6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가별수로 사용	가변수
	거주지역규모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으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사용	가변수
가구 특성	가구규모	가구당 가구원수	2.62 (1.32)
	가구유형(1)	모부자, 소년소녀가구(=1)	0.02 (0.14)
	가구유형(2)	기초생활수급가구(=1)	0.105 (0.307)

분석은 사용된 종속변수인 미래기대에 대한 기대(5년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변수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를 중심으로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stic Model)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상대소득으로 측정된 소득격차변수의 제곱항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소득격차의 증가가 미래기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Hirschman & Rothschild(1973)의 이론적 예측이 단기적 시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Verme(2011)은 Hirschman의 이론적 예측처럼 짧은 시계 동안의 소득격차는 일시적으로 미래기대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득격차의 기간이 지속되거나, 소득격차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동성에 대한 기대는 상실감으로 전환되고, 결국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비선형 관계의 가능성을 본 분석모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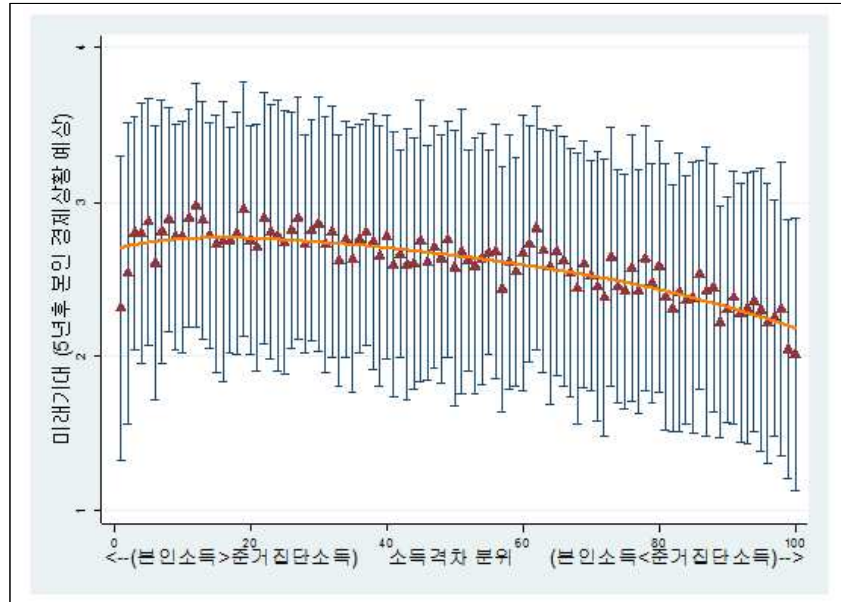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현재시점의 소득수준으로 측정되는 절대소득수준은 2년 전의 소득액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이 소득변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점에서 소득변화 이전 시점의 소득을 준거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도의 경우 2006년도의 소득을, 2011년도의 경우 2009년도의 소득을 절대적인 소득수준으로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소득격차와 미래기대

먼저 소득격차(준거소득과 본인소득 간의 격차)에 따른 미래기대의 변화는 <그림 1>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은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된 준거소득과 실제 본인소득 간 비율의 3년 평균을 내림차순으로 100개의 분위집단(percentile)으로 구분한 후, 각 분위집단에 따른 미래기대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림의 왼쪽부분에 위치한 분위일수록 본인의 실제소득이 준거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림의 오른쪽부분에 위치한 분위일수록 본인의 실제소득이 준거집단 소득에 비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분위에서의 세로막대 길이는 각 분위의 미래기대 평균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1> 소득격차와 미래기대의 변화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본인이 소득이 준거소득에 비해 낮아져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는 감소하고 있음(실선으로 나타낸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감소폭 역시 커지는 비선형 관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양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Hirschman & Rothschild(1973)의 이론적 예측(tunnel effects)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을 둔 Runciman(1966)의 예측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림 1>만으로 한국사회의 소득격차(상대소득)와 미래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Alesina et al. (2004)과 같이 미국사회에서 소득격차(불평등)가 삶의 만족도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미국사회의 높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기인한다는 주장²⁵⁾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설문이 <복지패널>에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서울서베이> 조사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25) Alesina et al.(2004)는 미국사회가 유럽사회보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근거로 세계 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를 들고 있다. 실제로 WVS (1994~1999)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 내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경우 약 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유럽국가들은 약 4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66%가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반면, 약 34%만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사회를 사회적 이동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수준은 국민들이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소득격차의 문제를 소득이동에 대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대적 박탈과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변화와 미래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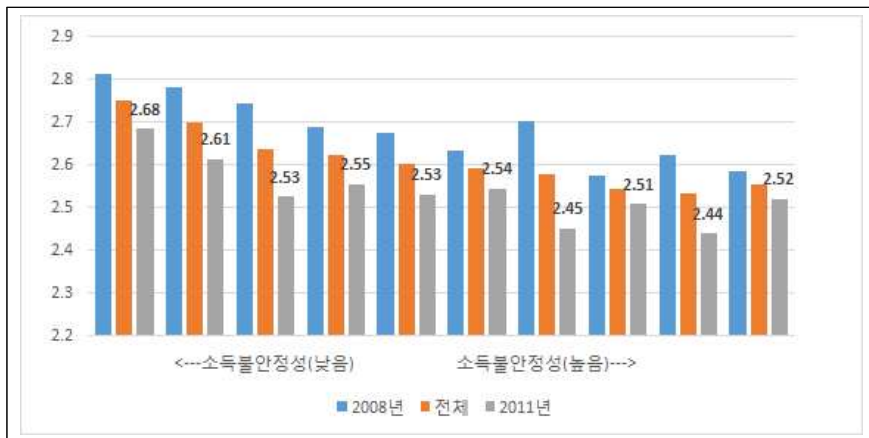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으로 측정된 소득변화와 미래기대 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2>는 3년 전과 대비하여 소득분위가 얼마나 이동했는가(소득이동성)에 따른 미래기대의 평균값을 보여주는데, 특히 3년 전에 비해 소득분위가 변경되지 않은 집단의 미래기대 수준을 중심($y=0$)으로 그 차이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3년 전 대비 소득분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의 경우 소득분위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적인 미래기대가 0.59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그림 오른쪽 막대), 소득분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의 경우 소득분위가 변경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미래기대가 0.50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왼쪽 막대). 즉,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본인의 과거(3년 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소득이 감소할수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측정시기(2008년 또는 2011년)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소득이동성과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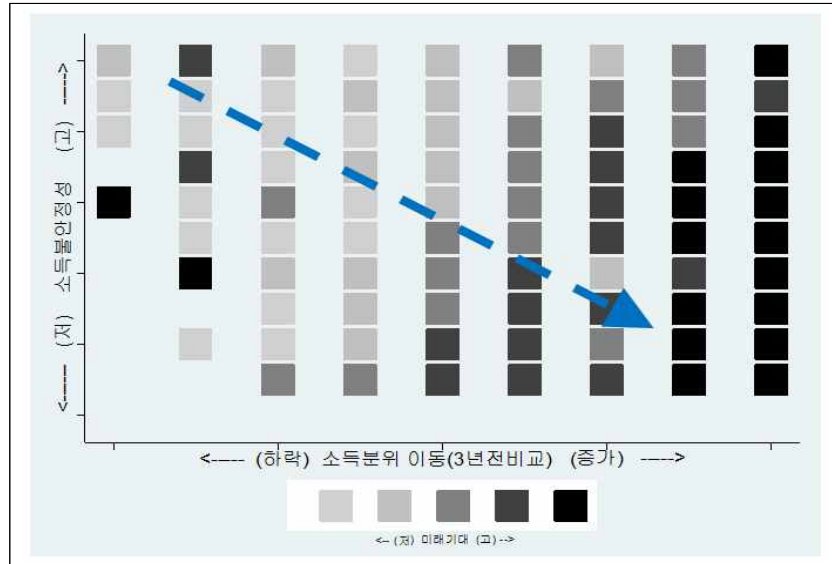
반면, 지난 3년간의 추정소득 대비 실제 소득비율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소득불안정성(가로축)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세로축)와의 관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 평균적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2008년도 평균 2.67, 2011년도 평균 2.53), 상대적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측정된 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몇몇 집단을 제외하고는 2008년과 2011년 모두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소득불안정성과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한편, <그림 2>와 <그림 3>이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와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 각각의 관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면, <그림 4>는 양자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이다. 즉, 소득이동성 정도와 소득불안정성 정도가 상호 조건 지워진 경우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데, 셀의 농도가 짙어 질수록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동성이 증가할수록(<그림 4>의 좌에서 우로 이동)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불안정성이 감소할수록(<그림 4>의 위에서 아래로 이동)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불안정성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소득이동성이 증가할수록 셀의 농도가 짙어 지고 있다는 점인데(<그림 4>의 화살표 방향), 이를 통해 양자의 교호적(interaction) 역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 소득이동성, 소득불안정성과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3. 소득격차, 소득변화와 미래기대

지금까지의 이변량 관계(bivariate relationship)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의 역할은 각각 준거소득 대비 상대소득이 클수록, 소득상승으로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불안정성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구주들이 인지하는 미래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격차로서의 상대소득과 소득변화로서의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 그리고 양자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순위로지스틱모형(Ordered Logistic)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부터 [모형 4]까지는 소득격차변수와 소득이동성, 소득(불)안정성, 그리고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간의 교호항을 차례로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며, 모든 모형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건강상태, 경력, 가구규모, 가구유형,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먼저, <표 4>의 모든 모형에서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가구소득은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견고(robust)함을 알 수 있다. 즉, 주관적 후생의 일부로 파악되는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소득 수준과 일정 부분 비례한다는 점으로 Easterlin의 역설(paradox)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소득수준과 달리 상대소득으로 측정된 소

〈표 4〉 소득격차와 소득변화가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 (순위로짓분석)

종속변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LN(균등화가구소득) (t-2)	0.710*** (0.057)	1.147*** (0.061)	1.150*** (0.061)	1.160*** (0.061)
소득격차(상대소득)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격차(상대소득) 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득이동		0.007*** (0.001)	0.007*** (0.001)	0.011*** (0.001)
소득불안정			-0.003*** (0.001)	-0.003** (0.001)
소득이동*소득불안정				-0.000*** (0.000)
연령	-0.082*** (0.014)	-0.112*** (0.014)	-0.112*** (0.014)	-0.113*** (0.014)
연령 ²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교육수준	0.143 (0.091)	0.077 (0.092)	0.075 (0.092)	0.074 (0.092)
교육수준 ²	0.003 (0.008)	0.004 (0.008)	0.004 (0.008)	0.005 (0.008)
결혼여부(1=결혼)	0.103 (0.069)	0.077 (0.069)	0.077 (0.069)	0.077 (0.069)
건강상태(1=장애)	-0.248*** (0.093)	-0.250*** (0.094)	-0.252*** (0.094)	-0.249*** (0.094)
현직장 경력	-0.003 (0.006)	-0.006 (0.006)	-0.007 (0.006)	-0.008 (0.006)
현직장 경력 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규모(가구원수)	0.101*** (0.023)	0.093*** (0.023)	0.091*** (0.023)	0.089*** (0.023)
가구유형 (1=모부자가구)	0.026 (0.171)	0.104 (0.171)	0.104 (0.171)	0.103 (0.171)
가구유형 (1-기초생활수급)	-1.233*** (0.099)	-1.066*** (0.099)	-1.078*** (0.099)	-1.080*** (0.099)
경제활동상태(더미)	YES	YES	YES	YES
거주지역(더미)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N	8,775	8,775	8,775	8,775
Log-likelihood	-8,617.81	-8,536.07	-8,532.80	-8,526.35
Pseudo R ²	0.149	0.157	0.157	0.158

주1) 괄호 (표준오차, standard error), cut point 생략

주2) *** p<0.01, ** p<0.05, * p<0.1

소득격차가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소득변화(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1]에서만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소득변화요인을 포함한 [모형2]~[모형4]에서는 소득격차가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그 방향성은 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으로 측정된 소득변화 요인들은 모든 모형에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년 전 대비 현재소득의 증가율이 높을수록(소득이동성이 높을수록)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모형2]), 소득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3]) 또한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의 교호항 역시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모형4]), 이러한 결과는 소득증가를 경험하는 가구라 할지라도 소득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불안정성이 미래기대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 4>의 결과는 자신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소득격차 요인과 소득변화 요인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소득변화(즉 본인의 동태적인 변화)와 소득격차(즉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동시에 고려했을 경우, 전자의 영향력은 명확한데 반해 후자의 영향력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가구주가 자신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소득변화(소득이동성이 높고, 소득불안정성이 낮은 형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회 내 소득격차(또는 소득불평등)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통합, 신뢰, 부패, 경제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 건전성 정도와 관련 지워지고 있다. 특히 주관적 후생(행복)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절대소득과 함께 상대소득(즉, 타인과의 비교 또는 소득불평등 수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표 4>의 분석결과는 명확하게 이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²⁶⁾ 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미래기대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소득격차에 대한 인지(cognition)보다는 자신의 소득동향에 대한 경험(experience)이라는 추정결과는 특기할만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의 주관적 후생(행복)이 아니라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라는 보다 시계열적 특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횡단면적 소득격차보다는 시계열적인 과거 경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소득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생활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과거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여지가 있

26) 상대소득의 중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다만 그 부호의 일관성만 보여주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과 그러한 안정적 소득원천의 확보가 개인의 주관적 후생과 삶의 질에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다시 말해준다.²⁷⁾

한편, [모형2]~[모형4]에서와 같이 소득변화가 고려되는 경우 소득격차요인이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득변화의 경험이 소득격차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격차 즉, 소득불평등 문제의 잠재적인 영향 가능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enik(2008)은 소득격차가 주관적 후생(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사회 혹은 개인(가구)이 놓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소득격차의 문제와 관련된 환경을 이동성(mob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소득격차와 미래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경험하는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에 따라 소득격차의 역할 역시 다른 양태를 보일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분석대상을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 각각의 중위값(50%)을 기준(상,하)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에서의 소득격차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²⁸⁾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소득으로 측정된 소득격차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 정도에 따른 집단구분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형5]~[모형7]의 경우 소득격차의 증가는 모두 미래기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형8]에서는 그러한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소득격차는 대체로 미래기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직 소득이동성이 높고 소득안정성 역시 높은 즉, 안정적인 소득상향이동을 경험하는 가구들에 있어서만 소득격차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소득이동성 하에서 소득불안정성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경우 즉, [모형5]와 [모형6] 또는 [모형6]과 [모형8], 그리고 동일한 소득불안정성 하에서 소득이동성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경우 즉, [모형5]와 [모형7] 또는 [모형7]과 [모형8]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심리의 하락은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 중 어떤 하나의 역할 만으로는 그 정도

27) 미래에 대한 기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과거의 경험과 함께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대한 판단은 다시 소득변화의 일정 부분을 불안정적이라 보는 판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역량을 높게 판단하는 경우 급작스런 소득변화를 지속적일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역량을 낮게 판단하는 경우 이를 운(luck, by chance)에 의한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로 남긴다.

28)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안정성과 소득이동성 정도의 크기를 각 변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에도 해석상의 차이는 없었다.

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격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우 소득이동성의 제고와 소득불안정성의 완화를 모두 고려한 정책적 설계의 필요성을 탐지할 수 있다.

〈표 5〉 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에 정도에 따른 소득격차의 영향 (순위로짓분석)

종속변수 (미래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소득이동성(저) 소득안정성(저)	소득이동성(저) 소득안정성(고)	소득이동성(고) 소득안정성(저)	소득이동성(고) 소득안정성(고)
LN(균등화가구소득) (t-2)	0.408*** (0.151)	0.921*** (0.185)	0.975*** (0.109)	1.326*** (0.141)
소득격차(상대소득)	-0.004*** (0.001)	-0.003* (0.001)	-0.002*** (0.001)	0.001 (0.001)
소득격차(상대소득) ²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Control	YES	YES	YES	YES
N	1,879	2,506	2,498	1,892
Log-likelihood	-1,946.25	-2,370.65	-2,462.83	-1,734.86
Pseudo R ²	0.140	0.168	0.169	0.146

주1) 괄호 (표준오차, standard error), cut point 생략
 주2) *** p<0.01, ** p<0.05, * p<0.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후생에 대한 소득의 영향에 있어서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 왔던 미래기대의 중요성과 그 형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주관적 후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의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그가 당면하는 객관적인 조건 즉, 현재의 소득수준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임을 논의하였고,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준거집단에 대한 소득격차는 물론 과거 경험했던 소득변화의 정도(소득이동성)와 양상(소득안정성) 역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상당부분 지지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과거 지속적인 소득상승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상승과정이 안정적인 경우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변화에 대한 경험은 준거집단에 대한 소득격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받

견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자신의 소득변화에 있어서도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은 일종의 시너지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일한 소득상승을 경험하더라도 안정적 소득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소득안정성을 갖더라도 소득하락보다는 상승을 경험하는 경우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관적 후생에 대한 소득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미래기대의 역할은 이미 Diener et al(1985)에 의해 제기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양태 즉, 격차와 변화양상에 따른 차별적 효과 파악과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신의 소득변화 경험(소득이동성과 소득불안정성)이 미래기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높은 소득이동성과 낮은 소득불안정성이 미래기대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적이고 점증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미래기대는 물론 더 나아가 주관적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취업률 제고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충 등은 소득제고에, 비정규직 차별완화와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소득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이와 함께 긍정적 미래기대를 유발함으로써 주관적 후생과 긍정적 삶의 태도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사회적 개선(social betterment)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행태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미래기대와 주관적 후생의 제고는 정책 수용성은 물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소득불평등 또는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의 미래기대에 대한 기여정도는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이 높은 경우에만 완화된다는 분석결과는 정책설계에 있어서 양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책현실이라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측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득격차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준거집단 및 준거소득의 구성문제, 소득이동성 및 소득안정성의 측정에 있어 시계(time horizon)와 정도(degree)의 문제, 그리고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데 직접적인 자기기입(self-report) 방식의 설문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만 문제라기보다는 소득 및 주관적 후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로서 향후 보다 측정의 정확성(accuracy)과 정밀성(precision)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모형구성(model specification)에 있어서 거시경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은 짧은 시계열 자료의 극복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론적으로도 주관적 후생함수를 미래기대함수로 대부분 원용하고 있음은 양자 간의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 양해를 구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1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경제발전연구* 17(1).
- 금현섭·백승주 (2014).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1):145-175.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12(2):325-345.
- 김정호 외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 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5(1).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1).
- 이현송 (2001). “소득과 전반적 삶의 만족 간의 관계.” *노동경제논집* 24(1): 231-251.
- 장병기·최종일 (2001). “주가·기대심리·거시경제변수의 장기균형 관계.” *재무관리연구* 18(2):125-144.
- 전영상·현근 (2011). “4대강 살리기 사업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 분석.” *지방행정연구* 25(1):83-116.
- Alesina, A., et al.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09-2042.
- Alesina, A. and E. La Ferrara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 897-931.
- Benabou, R. and E. A. Ok (1998).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 Birdsall, Nancy and Carol Graham (1999). *New Markets, New Opportunities?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Brookings and Carnegie.
- Blanchflower, D. G. and A. J. Oswald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owning, M. and A. Lusardi (1996).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4): 1797-1855.
- Caballero, R. J. (1991). “Earnings uncertainty and aggregate wealth accumul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59-871.
- Carroll, Christopher D. (1994) “How Does Future Income Affect Current Consumption?” *Quarterly Journal*

- of Economics, Vol.109:111-147.
- Caplin, A. and J. Leahy (2001). "Psychological expected utility theory and anticipatory feeling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55-79.
- Clark, A. (2003). "Inequality-aversion and income mobility: a direct test.". DELTA Working Papers
- Clark, A. and E. D'Angelo (2008). "Upward Social Mobility, Wellbeing and Political Preferences: Evidence from the BHPS." Working Papers 338, Universita Politecnica delle Marche (I), Dipartimento di Economia.
- Clark, A. E., et al. (2008).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a Test of the Baseline Hypothesis*." *The Economic Journal* 118(529): F222-F243.
- _____.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 Clark, A. E. and A. J. Oswald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 Corneo, G. and H. P. Gruner (2000). "Social Limits to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0(5): 1491-1507.
- _____. (2002). "Individual preferences for political redistribu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1): 83-107.
- D'Ambrosio, C. and J. Frick (2007). "Individual well-being in a dynamic perspective." *Economica* 79.
- Duesenberry, J.S. (1949). *Happiness in Economics*, Edward Elgar, Cheltenham
- Dynarski, S., et al. (1997). "Can families smooth variable earning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7(1): 229-303.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125.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484.
- Ferrer-i Carbonell, A. F. (2005). "Income and Well 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 Fields, G. S. (2000). *Income Mobility: Concepts and Measures. New markets, new opportunities?: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N. Birdsall and C. Graha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Frey, B. S. and A. Stutzer (2000).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79-102.
- Frey, B. S. and A. Stutzer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Gottschalk, P., et al. (1994). "The growth of earnings instability in the US labor marke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2): 217-272.
- Graham, C. and S. Pettinato (1999). *Assessing hardship and happiness: trends in mobility and expectations in the new market economies*, Center on Social and Economic Dynamics.
- Hirschman, A. O. and M. Rothschild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A Mathematical Appendix."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544-566.
- Irvine, I. and S. Wang (1994). "Earnings Uncertainty and Aggregate Wealth Accumulation: Com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5): 1463-1469.
- _____. (2001). "Saving behavior and wealth accumulation in a pure lifecycle model with income uncertainty." *European Economic Review* 45(2): 233-258.
- Leibenstein, H. (1950).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4, 183-207
- Lucas, R. E., et al.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
- Mateju, Peter (1999). *Mobility and Perceived Change in Life Chances in Post-Communist Countries*. *New Markets, New Opportunities?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in a Changing World*. N. Birdsall and C. Graham, Brookings.
- McBride, M.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5(3): 251-278.
- Morissette, R. and Y. Ostrovsky (2005). "The instability of family earnings and family income in Canada, 1986-1991 and 1996-2001." *Canadian Public Policy/Analyse de politiques*: 273-302.
- Osberg, L. and A. Sharpe. (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291-316.
- Persky, J. and M. Y. Tam (1990). "Local status and national social welfa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0(2): 229-238.
- Piketty, T. (1995). "Social mobility and redistributive politic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551-584.
- Pistaferri, L. (2003). "Anticipated and unanticipated wage changes, wage risk, and intertemporal labor supp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3): 729-754.
- Posel, D. R. and D. M. Casale (2011). "Relative stand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outh Africa: The role of perceptions, expectations and income mobi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2): 195-223.

- Ravallion, M. and M. Lokshin (2000). "Who wants to redistribute?: The tunnel effect in 1990s Russi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1): 87-104.
- Runciman, W. G. (1966). "Relative deprivation & social justice: study attitudes social inequality in 20th century England."
- Senik, C. (2004). "When information dominates comparison: Learning from Russian subjective panel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99-2123.
- Siegrist, J. (2003). "Subjective well-being: new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in health-related social sciences." *Income, Interac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25-26.
- Stiglitz, J. (2010) *Stiglitz Report: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in the Wake of the Global Crisis*, The New Press.
- Stutzer, A. and B. S. Frey (2006).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rocedural utility: An empirical stud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3): 391-418.
- Van de Stadt, H., et al. (1985). "The relativity of utility: Evidence from panel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79-187.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Verme, P. (2011).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nequality."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1): 111-127.
- Wu, L. L. (1996).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income, and income instability on the risk of a premarital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6-406.
- Yitzhaki, S. (1979). Yitzhaki, S. (1979).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21-324.
- _____. (1980).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Rep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80

Income Disparity, Income Change, and Future Expectation

Kum, Hyunsub & Baek, Seu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future expec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and explor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future expectation related to income change. Although the future expectation is individual's crucial judgment concerned their various income change aspects, it hasn't almost been discussed about how future expectation formed. In these respects,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expectation and income disparities,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perience of stable income increase raises future expectation, but income disparity compared with a reference group doesn't affect future expectation when it considered with income changes. In addition, we found that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have a synergy effect on the future expectantly. When people experience more stable income chang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increases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And when people experience an income increas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stability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too.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noted that stable income security plays a key role in forming a future expectation in policy reality.

[Key Words: income disparity, income mobility, income stability, future expectation]